

## Influenc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Academic Stres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Lower Nursing Students

Suk-Kyong Choi\*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Gangwon,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238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the W city area,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to November 30, 2024.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ubjects' communication ability was 3.50 points, academic stress was 2.26 poi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40 poin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bility were major satisfaction, number of friends, communication ability, and academic stress, with explanatory ability being 63.7%.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non-academic programs to improve the adaptability of junior nursing students to university life.

▶ **Key words:**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jor Satisfaction

### [요 약]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W시의 1개 대학교 저학년 간호대학생 238명으로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피어슨 상관관계수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0점, 학업스트레스 2.26점 및 대학생활적응은 3.40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학생활 적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과 친구 수, 의사소통능력 및 학업스트레스로 설명력은 63.7%이었다.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 **주제어:**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

- 
- First Author: Suk-Kyong Choi, Corresponding Author: Suk-Kyong Choi
  - \*Suk-Kyong Choi (csk0120@kduniv.ac.kr), 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 Received: 2025. 02. 10, Revised: 2025. 03. 11, Accepted: 2025. 03. 27.

## I. Introduction

### 1. The Need for Research

최근 우리나라는 간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입학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보다는 높은 취업률 및 주변 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활에서 학업적, 정서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 대학생 시기에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양 교과목과 전공지식 및 핵심간호술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이 예비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 과중한 학업부담과 교과외 활동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후 우수한 취업지로 취업을 위해 입학과 동시에 학점관리, 각종 자격증 취득과 토익점수 등 스펙 경쟁으로 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 성인기 초반에 제시된 발달과업 달성을 비롯하여 임상현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3]. 따라서 단순히 대학생활적응이라는 의미를 넘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에 대한 적응력 향상의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된다[2].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불일치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으로[4]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간호교육의 핵심이며 필수적인 능력이다[5].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6]. 이렇듯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이후 사회생활과 직결되어 직업정체성을 높여주어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8]. 반면에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한 경우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의욕저하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9].

간호대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로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긴장감과 근심, 우울 및 초조감 등의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0]. 학업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정신적 및 육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을 느껴 학업포기로 이어진다[11]. 특히 저학년에서의 학업포기는 결국 자퇴를 하게 되고 이는 학과의 재학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대학생활적응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12].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미래 전문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저학년 때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두 변수를 포함한 요인에 대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 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Purpose of the Research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을 측정한다.
- 셋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 II. Literature Review

### 1.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능력이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불일치할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이며[4],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간호교육의 핵심이며 필수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5].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관계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 및 언어적 능력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13]. 관계적 능력에는 감정이입과 의사소통 과정 중 자기노출과 지지력 및 상호작용 관리 대한 능력이 포함되고, 대인적 능력에는 주장력, 효율성, 목표 간파와 사회적 긴장 완화 및 잡음 통제력에 대한 능력이 포함되었다. 언어적 능력에는 표현력과 반응력, 즉시성, 조리성 및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능력으로 분류하였다[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함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5].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이 되지만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Academic stress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 상태로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긴장감과 근심, 우울 및 초조감 등의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0].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과제와 발표수업, 이론과 술기 시험이 학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이라는 간호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실습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위기상황들이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각종 스펙을 학기 중에 쌓아야 하는 등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처럼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업 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 감소와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은 대학생활적응 향상으로 나타났기에[17]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인 요구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학업적 적응과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와 사회적 지원 조직의 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 적응 및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는 개인, 정서적 적응 등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애착도와 만족도 및 학업적 목표에 대한 스스로의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대학환경적응의 네가지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점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적응은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 및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5]. 그러므로 저학년때부터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 후 대학생활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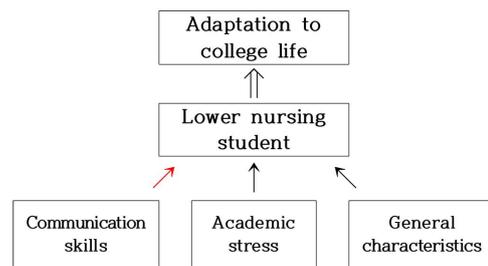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III. Methods

###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Research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은 W시에 위치한 대학의 1~2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 수행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들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및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및 유의수준 .0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인원 수는 172명으로 대상자수는 충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합한 2부를 제외한 23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Research tools

### 3.1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능력은 Rubin[4]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를 Her[13]가 수정 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er[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5$ 이었다.

### 3.2 Academic stress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Schaufeli 등[19]에 의해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척도를 Shin[20]이 번안한 것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20]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역시 Cronbach's  $\alpha=.87$ 이었다.

### 3.3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학생활적응은 Park[1]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환산 문항은 11, 16, 17번 문항이며,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4.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및 학문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실시와 상시 철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참여시 비밀보장과 익명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별도의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실수와 백분율)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구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IV. Results

### 1.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 $F=16.444$ ,  $p<.000$ ), 학교생활만족( $F=20.735$ ,  $p<.000$ ) 및 친구 수( $F=8.297$ ,  $p<.00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과 학교생활만족에서 '불만족'일 때보다 '만족'할 때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친구 수의 경우 친구수가 3명 이하일 때보다 6명 이상일 때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전공만족( $F=36.885, p<.000$ ), 학교생활만족도( $F=29.267, p<.000$ ), 학업성적( $F=12.039, p<.000$ ), 간호학과 지원동기( $F=3.235, p<.02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과 학교생활만족도 각각에서 '불만족'인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평점 3.0-3.4'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평점 4.0'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동기'로 입학한 경우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 $F=45.326, p<.000$ ), 학교생활만족도( $F=37.828, p<.000$ ), 친구 수( $F=15.138, p<.000$ ), 학업성적( $F=5.093, p<.002$ )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 $F=3.696, p<.01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이나 '보통'의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았다. 또한 친구 수가 '6인 이상'인 경우 '3인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평점 3.5이상'인 경우가 '평점 3.4'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의 경우 '자발적 동기'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 대학생활적응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The Scor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0점,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2.26점 및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 $r=.587, p<.000$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 $r=-.692, p<.000$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 4.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가정의 검정 결과 회귀식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정인 Durbin-Watson 통계량이 1.727로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627-.956으로 0.1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46-1.595로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만족,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수, 학업성적을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하였다( $F=25.515, p<.001$ ).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beta=.246, p<.000$ )과 학업스트레스( $\beta=-.448, p<.000$ ), 친구 수( $\beta=.182, \beta=.199, p<.000$ ) 및 전공만족( $\beta=.174, p<.000$ )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 $R^2$ )은 63.7%로 나타났다(Table 4).

## 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후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3.50점이었다. 동일한 도구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각각 3.76점[14] 및 3.52점[15]으로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4학년 대상 연구결과 3.64점[21]으로 본 연구보다 높아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학년 대상 연구에서는 3.24[22]로 본 연구보다 낮아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이상 이기는 하나 추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의사소통은 대부분이 이론 위주의 수업방식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목별 세부 영역에서 의사소통에 대해 다루고 있어 고학년일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점차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Sex	Male	52(21.8)	3.49±0.37	-0.187	2.22±0.41	-0.707	3.46±0.54	0.999
	Female	186(78.2)	3.5±0.39	(.852)	2.27±0.45	(.480)	3.38±0.52	(.319)
Grade	1st	118(49.6)	3.46±0.32	-1.785	2.26±0.40	0.017	3.35±0.51	-1.329
	2nd	120(50.4)	3.55±0.43	(.076)	2.26±0.48	(.987)	3.45±0.54	(.185)
Club activities	Yes	128(53.8)	3.54±0.37	1.925	2.23±0.43	-0.84	3.45±0.53	1.502
	None	110(46.2)	3.45±0.40	(.055)	2.28±0.45	(.402)	3.35±0.52	(.134)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 <sup>a</sup>	5(2.1)	3.15±0.29	16.444	3.19±0.35	36.885	2.61±0.64	45.326
	Average <sup>b</sup>	139(58.4)	3.41±0.34	(.000)	2.37±0.38	(.000)	3.21±0.39	(.000)
	Satisfied <sup>c</sup>	94(39.5)	3.66±0.39	a,b<c	2.03±0.39	a>b,c	3.73±0.51	c<a<b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ied <sup>a</sup>	21(8.8)	3.30±0.35	20.735	2.76±0.49	29.267	2.84±0.62	37.828
	Average <sup>b</sup>	146(61.3)	3.42±0.36	(.000)	2.29±0.37	(.000)	3.31±0.39	(.000)
	Satisfied <sup>c</sup>	71(29.8)	3.72±0.36	a,b<c	2.03±0.41	a>b>c	3.74±0.54	c<b<a
Friendly number	>3 <sup>a</sup>	45(18.9)	3.36±0.27	8.297	2.31±0.45	0.872 (.419)	3.20±0.42	15.138
	4~5 <sup>b</sup>	96(40.3)	3.46±0.33	(.000)	2.28±0.38		3.28±0.42	(.000)
	≥6 <sup>c</sup>	97(40.8)	3.61±0.44	a<c	2.21±0.49		3.61±0.59	c<a,b
Grade point average	≥4.0 <sup>a</sup>	64(26.9)	3.55±0.45	2.408 (.068)	2.02±0.39	12.039 (.000) a<b,d<c	3.56±0.62	5.093 (.002) a,b>c,d
	3.5~3.9 <sup>b</sup>	111(46.6)	3.53±0.35		2.29±0.42		3.42±0.46	
	3.0~3.4 <sup>c</sup>	43(18.1)	3.42±0.36		2.40±0.42		3.20±0.51	
	<3.0 <sup>d</sup>	20(8.4)	3.35±0.32		2.26±0.44		3.23±0.39	
Motive of major selection	Voluntary motivation <sup>a</sup>	120(50.4)	3.55±0.37	1.757 (.156)	2.18±0.45	3.235 (.023) a,d<b,c	3.51±0.53	3.696 (.013) a>c,d>b
	Recommendation by others <sup>b</sup>	38(16.0)	3.42±0.28		2.41±0.45		3.22±0.48	
	According to School records <sup>c</sup>	14(5.9)	3.51±0.33		2.35±0.34		3.30±0.43	
	High employment rate <sup>d</sup>	66(27.7)	3.45±0.45		2.26±0.44		3.33±0.53	

Table 2. The Scor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Variable	M	SD	Min	Max
Communication skills	3.50	0.38	1.73	4.60
Academic stress	2.26	0.44	1.00	3.60
Adaptation to college life	3.40	0.53	1.94	4.9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Variable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Communication skills	1		
Academic stress	-.457** (.000)	1	
Adaptation to college life	.587** (.000)	-.692** (.000)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Variable	B	SE	β	t	p
Dissatisfaction of Major	.164	.163	.045	1.007	.315
Satisfaction of Major	.187	.053	.174	3.551	.000
Dis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10	.095	-.113	-2.206	.028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029	.056	-.027	-.514	.608
Friendly number >3	-.244	.064	-.182	-3.836	.000
Friendly number 4-5	-.213	.049	-.199	-4.332	.000
Grade point average 3.5-3.9	.012	.053	.011	.229	.819
Grade point average 3.0-3.4	-.060	.068	-.044	-.873	.384
Grade point average >2.9	.035	.089	.019	.398	.691
Communication skills	.337	.065	.246	5.216	.000
Academic stress	-.537	.064	-.448	-8.356	.000

R=.815, R2=.663, Adjusted R2=.637, F=25.515,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및 친구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 동아리활동, 경제수준 및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학교 차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과 전공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양 교과목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어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전문가 상담과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증진을 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4점 만점에 2.26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전체 학년 대상 연구에서 2.26점[24]으로 본 연구 결과와 같았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2.28점[25] 및 2.33점[26]으로 본 연구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대상 연구에서는 2.61점[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이 1,2학년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4].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등 다양하고 많은 학업으로 인하여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이 1,2학년 이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중간수준 이상에 해당되므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저학년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의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학년별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 추후 전체 학년 대상 및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학년별 반복 연구를 통한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년, 지원동기,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 학교성적, 경제상태 및 거주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또 다른 연구에서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및 전공만족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업스트레스는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공만족이나 대학생활만족 및 학업성적 등이 일관되게 학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임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 마련시 이들 변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40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실시한 선행연구결과 3.71점[14] 및 3.79점[15]으로 본 연구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3.28점[17]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생 개개인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학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은 결국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관련이 있기에 대학생활적응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입학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수, 학업성적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친한 친구 여부,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28], 거주형태, 동아리활동,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및 간호학과 선택동기에서 차이가 있어[14]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적극적인 학습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전공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학교생활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보였으며[15,22], 학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대[16,28].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능

력 향상과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향후 간호사가 지녀야 할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강의식보다는 실질적인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목 수업운영시 플립러닝 수업과 PBL(problem-based learning) 및 간호시뮬레이션 수업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운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학업스트레스 감소 대책으로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29]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저학년 때부터 예방적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친구 수와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전공만족이었다. 선행연구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15,27]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과 친구 수에서도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을 위해 저학년 때부터 자신이 선택한 간호학문의 교과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정에서부터 전공몰입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잠재적 역량개발을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 수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으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통하여 전문간호사로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주장되었지만 간호대학생이 졸업후 간호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환경과 커리큘럼 구성을 원활하게 체계화한다면 과도한 학업 과정에서 겪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저학년 때부터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한다면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후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에 의의가 있다.

##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수, 학업성적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친구 수 및 전공만족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과도한 학업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룹활동 프로그램의 확대 및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간에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도 더불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이외에도 다양한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양한 변수들을 확대한 추후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2학년만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설정한 후 분석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 제한을 둔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의 대학으로 확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dong University Research Fund, 2024.

## REFERENCES

- [1]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Seoul. 2017.

- [2] H. J. Park, E. K. Byun & H. J. Yang, "Influence of Self-esteem,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2, pp. 627-636. December. 2019. DOI : 0.35873/ajmahs.2019.9.12.056
- [3] M. Y. Kim & E. K. Byun,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pp. 105-113, January. 2022. DOI : 10.17703/JCCT.2022.8.1.105
- [4] R.B. Rubin & M. M. Martin,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1, No. 1, pp. 33-44, 1994.
- [5] E. J. Ji, M. R. Bang &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71-579, November. 2013. DOI : 10.5977/jkasne.2013.19.4.571
- [6] H. M. Hwang,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 12, No. 1, pp. 1-10, June. 2017. DOI : 10.15715/kjcom.2017.12.1.1
- [7] H. Y. Lee, "A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Theses for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2017.
- [8] M. R. Lee & M. J. Lee,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197-208, June. 2018. DOI: 10.5762/KAIS.2018.19.6.197
- [9] E. J. Oh, S. H. Ko, J. Y. Kim & S. R. Kim,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Vol. 21, No. 4, pp. 426-434, September. 2015. DOI: 10.11111/jkana.2015.21.4.426
- [10] J. A. Kim & I. A. Kim, "The effect of Part-time job experience,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areer Str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4, pp. 463-471. April. 2018. DOI: 10.5762/KAIS.2018.19.4.463
- [11] S. H. Shin,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1, pp. 14-24, February. 2016. DOI: 10.5977/jkasne.2016.22.1.14
- [12]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7, No. 2, pp. 124-131, June. 2016. DOI: 10.12799/jkachn.2016.27.2.124
- [13]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December. 2003.
- [14] Y. H. Cho, E. M. Lee & Y. J. Oh,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21. No. 11, pp. 117-124, November. 2023. DOI : 10.22678/jic.2023.21.11.117
- [15] E. S. Sh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took Blended Learning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2, No. 10, pp. 392-403, August. 2022. DOI : 10.5392/JKCA.2022.22.10.392
- [16] H. J. Ja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 Academic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4. pp. 969~985, August, 2020. DOI: 10.12925/jkocs.2020.37.4.969
- [17] H. J. Jung & M. J. Cha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8, pp. 403-417, August. 2018. DOI: 10.21742/AJMAHS.2018.08.15.
- [18] Baker R. W &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1, pp. 179-189, 1984.
- [19]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3, No. 5, pp. 464-481, September. 2002. DOI: 10.1177/0022022102033005003
- [20] D. W. Shin,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 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2.
- [21] S. K. Choi,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Major Immers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9. No. 3, pp. 155-163, March. 2024. DOI : 10.9708/jksoci.2024.29.03.155
- [22] E. Y. Kim,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41, No. 3. pp. 565~574, June, 2024. DOI: 10.12925/jkocs.2024.41.3.565
- [23] M. K. Cho & H. Jeong,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 539-547, November. 2018. DOI: 10.15207/JKCS.2018.9.11.539
- [24] H. S. Jeong, "Influence Factors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Dimensions of Empathy, Ego-resilience, Stress-coping Strateg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 256-266, April, 2017. DOI: 10.5392/JKCA.2017.17.04.256
- [25] E. K. Byun & Y. H. Joo, "Effects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85-93, November 30, 2020. DOI: 10.17703/JCCT.2020.6.4.85
- [26] E. K. Byun & M. Y. Kim, "Effects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pp. 167-174, January, 2022. DOI: 10.17703/JCCT.2022.8.1.167
- [27] E. J. Oh, G. J. Jo & Y. K. Jung,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1, No. 6, pp. 2583-2595, December. 2020. DOI: 10.22143/HSS21.11.6.182
- [28] M. J. Seo & J.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4, pp. 815-824, January. 2021. DOI: 10.5392/JKCA.2021.21.04.815
- [29] N. L. Noh,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nxie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3, No. 6, pp. 388-397, May. 2023. DOI: 10.5392/JKCA.2023.23.06.388

## Authors



Suk-Kyong Choi received the Ph.D. degrees in Public Health department of Catholic University, Korea, in 2007. Dr. Choi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at Kyungdong University, Kangwon,

Korea, in 2015.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health promotion and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and suicide.